

## 《세월》호 참사 : 북녘의 주민들은 말한다

◆ 남조선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려객선의 침몰과 함께 목숨을 잃은 대참사소식을 듣고 동족으로서 더우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내 심정이 이러할진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야 오죽이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자기 자식들을 죽였다고 울분을 토한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돈만 아는 박근혜 《정부》, 황금만능의 색은 사회가 빚어낸 현 세기의 참혹한 비극입니다.

평양시 련화소학교 교원 심 춘 영

◆ 《세월》호가 침몰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보름이 더 지나갔습니다. 우리라면 벌써 물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도 남았을텐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바다물속에 온 100명이 잠겨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 주민들을 눈독도 단 한사람도 구해내지 못한 박근혜가 그레가지고서도 무슨 《통일을 주도》한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김철주시범대학 학생 리 영 수

◆ 이번 《세월》호참사를 지켜보면서 남조선이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을 정말 신물이 나도록 속속들이 파악했습니다. 돈만 아는 세상, 돈때문에 빚어진 기복적인 인재입니다. 《정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몸을 담고 그런 《대통령》

밑에서 살아가는 남녘동포들이 불쌍하지만 합니다. 사람목숨보다 돈을 더 먼저 놓는 이런 사회, 이런 《정부》는 꼭 망하는 사회, 망하는 《정부》입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인간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사회가 얼마나 고마운 사회이고 목숨바쳐 지켜야 할 삶의 보금자리인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통라인민유원지 작업반장 김 봉 수

◆ 《세월》호의 참사소식이 온 행성을 뒤흔들고있는 지금 이 순간은 박근혜의 허울이 날날이 벗겨진 순간이라곤 볼니다. 타고기어린 가슴, 사람들을 소스라치게 하는 더러운 몸통이를 감추어버리고 이제까지 돌아다니며 화사한 웃치장이나 하고 《복지》니, 《국민안전》이니 떠들어대었지만 이번엔 그 정체가 날날이 드러났습니다.

인민들의 생명보다 자기 인기물을 올리려는나 굶금하고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도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고 특목한 대책 하나 세우지 않는 차디찬 맹렬인간, 온 남녘땅이 슬픔에 빠졌는데 오바마라는 강도두목이나 집안에 끌어들이고 시신을 한사랏이라도 더 건져낼 대신 민심의 분노를 우리한테로 돌려보려고 별의별 대책만들 다 늘어놓고, 그런 독사한데 목숨을 맡기고있는 남조선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지만 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수백명아이들의 원혼이 이제 박근혜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남조선정세전문가 리 영 란

◆ 해양경찰, 민간구조대원들이 다 동원되고 수많은 배와 직승기까지 동원하고서도 바다에 빠진 수백명을 단 한사람이라도 살리지 못했다는것이 도저히 리해가 안가고 격분에 이가 갈립니다.

아마 《세월》호가 우리측 해역에서 침몰하였다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너도나도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 한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해내고야말았을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없으면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 배가 가라앉는것을 보면서도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지켜보기만 했고 결국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라면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것이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빚어낸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입니다.

북과 남의 정신세계는 말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박근혜가 책하면 《위협》이니, 《인권》이니, 《굶주림》이니 하며 끝까지 체제대결에로 나가고있는데 북과 남이 체제대결을 한것자 누가 이기겠는가는 이번 《세월》호참사가 너무도 명백히 가르쳐줍니다.

공화국은 정신력의 제일강자, 령도자와 군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이고 그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강계맥주공장 직장장 한 수 영

◆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대형려객선이 침몰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가슴아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불면 날아갈새라 취면 부서질새라 금이야 옥이야 키우던 자식들, 한창 피어나던 꽃망울같은 아이들이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기들의 아름다운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들을 죽음에로 몰아간자가



려객선 《세월》호에 대한 구조작업에 무책임한 《정부》를 단죄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4월 29일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죄송》하느니 뭐니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남조선여론의 눈길은 싸늘하다. 대형참사로 지지불이 떨어지니까 마지못해 사과놓음을 베풀었고 그것도 진실 아닌 형식적인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외국인론들까지 지적하고있는것처럼 수백명의 사망자와 실종자수를 낸 이번 대형참사의 주되는 책임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남조선당국, 더 정확하게는 집권자인 박근혜 자신에게 있다.

왜 그렇게 말할수밖에 없는가. 현 남조선집권자가 취임사라는데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력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세월》호의 침몰은 박근혜가 떠돌어온 《안전한 사회》라는것이 한갓 공념불에 불과하고 그의 돈밖에 모르는 재벌위주, 인명경시정책이 대형려객선을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세월》호가 옆으로 자빠져 침몰하고있던 시기에 남조선당국이 취한 행동은 더우기 유가족들과 온 남녘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2시간동안인원 신체안에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충분히 구조할수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은 구조신호를 받고도 실질적인 구조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수백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들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차가운 바다속에 잠겨가

바다물속에 구원을 애라게 기다리다 서서히 죽어가야 했다. 지어 남조선당국은 구조활동에 자원해나선 민간인담수부들의 활동을 가로막는가 하면 휴식하고있는 잠수부의 몸에 물을 뿌려 언론에 내세우고 청와대에로 향하는 실종자가족들의 고통행정을 가로막는

저열한 행위만을 일삼았다. نہ앞에서 수백명이 죽어가는데 빈말과 거짓말만 하고 선장이 살인자라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나니 이런 《정부》, 집권자에게 인민들이 분노와 저주를 보내고있는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박근혜는 《세월》호참사로 저들에게로 쏘리는 민심의 분노의 화살을 다른데로 돌려보려고 초상난 집에 오마마를 끌어들이 반북대결선언을 늘어놓는 등 시신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안정과 동족대결에만 환장한 맹렬한 것이라는것을 자기스스로 드러내었다.

그리고도 낮간지럽게 《죄송》이니 뭐니 하니 누가 그 말을 진심이라고 받아들였는가. 《대통령》이 살인자라는 원한의 목소리는 지금 남녘땅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둘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실려 하루동안에 50만명이상이 열람한것은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실증하고있다.

박근혜는 《북의 인권》이니, 《靑주립》이니 하는 허황한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자기에게로 향한 남녘민심의 분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민심의 규탄에 밀려 허우적대는 《박근혜》호가 차디찬 물속에 가라앉을 날은 다가오고있다.

김 철 호



### 려객선침몰사고에 대한 당국의 래도를 비난

남조선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의하면 남조선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28일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래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침몰

된 려객선 《세월》호에 대한 구조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각계 민중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과 선원들에게 떠넘기

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국무총리》의 사퇴의사 표명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한것처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박근혜가 국민앞에 직접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어 내외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4월 28일 피뢰 국방부는 《미일남조선 (군사정보공유량해각서) 체결은 《정부》내 실무론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려객선침몰사고를 기화로 불순한 정치목적적을 달성해보려는 범죄적기도가 아닐수 없다.

이른바 《군사비밀보호협정》이란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예 《대용》한다는 미명하에 서로 군사비밀을 교환한다는 협정체결을 말한다.

지난 2012년 7월 리명박때당은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나 민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만두지 않을수 없었다.

박근혜때당은 바로 이러한 협정을 미일남조선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체결하고있는것이다. 지금까지 피뢰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정보공유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느니, 《론의한 단계가 아직 아니다.》느니 하면서 마치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립장인듯이 여론을 내돌려왔다.

그러나 이것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갓 요술에 불과하다는것이 이번에 날날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마찰이 있는것

처럼 하지만 실지 막뒤에서는 공공연한 군사적협조와 군사동맹강화가 다그쳐지고있는것이다.

지금 비국적인 《세월》호참사로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이 되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470여명에 달하는 승객들을 실은 려객선이 통제로 바다에 수장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차가운 바다속에 잠기었다. 지금 이 시각도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과 실종자들을 찾고 부르는 울부짖음소리가 온 남녘땅에 차 넘치고있다.

사태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직접적책임이 있는 박근혜때당이 그들의 시신이라도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시기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하려 하는것은 패륜패덕의 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천하망망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박근혜때당이 남조선인심을 우롱하고 비국적참사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체결하려고 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으로 말하면 일본인의 군국화를 제촉하고 제침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 못할 반민적범죄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때당이 미일상전들과의 3각군사동맹으로 살길을 열어보려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저들의 멸망만을 제촉할뿐이다.

우리 온 겨레는 박근혜때당의 반민족적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박 철 남

### 인권심판대에 처야 할 당사자는

최근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어중이떠중이들을 사족하여 그 무슨 《북인권개선》을 추구한다면 《북자유주간》이라는 광대국을 벌려놓았다.

동족간의 신뢰가 아니라 끝없는 대결야욕을 또다시 드러내보인 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전역이 《세월》호참사로 인해 초상집과 같은 상태에 이르면 대결광대국을 벌려놓는것은 분노한 민심을 판데로 돌려보려는 치졸한 모략국이다.

지금 온 남조선땅은 려객선침몰참사로 슬픔과 눈물의 바다, 분노의 도가니이다. 피해자가족들은 물론 누구라없이 애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를 애도하며 분향소를 찾고 있다.

이런 초상집분위기에서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며 무릎꿇고 사회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때당이 피해자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을 우롱, 기만하다 못해 인간쓰레기들을 사

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파멸에 직면한 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인권심판대에 올라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박근혜때당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세계의 언론은 《승객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던 《세월》호 선장의 태도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놀람도록 다르지 않다.》며 이번 참사의 책임을 아래에 떠밀며 《침몰하는 시스

템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 단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살인마는 박근혜때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있다.

대결미치광이들이 아무리 짖어도 그것은 달리고 쫓는 개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될뿐이다.

박근혜때당은 부질없는 대결광대국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얼마전에 있는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서울행각때 미국과 남조선은 2015년 12월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그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미국공동실무단은 오는 10월 남조선미국 《안보협의회》에서 최종합의안건의를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와 조건을 협의중에 있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요구주둔을 꾀하는 미국과 상전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서로의 리해관계에 따른 위험천만한 공모결락의 산물이다.

한글전변과 같이 미국은 근 70년간 타고앉은 남조선이라는 전략적요충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나 《전시작전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있다. 이로부러 미국은 2006년에 2012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2015년까지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와 조건을 제검토하도록

을 떠들며 동족대결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더 주요하게는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 하고있다.

초상난 집행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독바른 수습대책도 없이 오히려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이런 민족반역자, 치마두른 전쟁광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침략군, 강점군을 계속 불들어두다 못해 군대에 대한 치회권까지 계속 행사해달라고 갖은 구걸을 일삼는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다.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고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적기도와 외세를 할애비로 삼기면서 그들을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라는 어리석은 개꿈을 꾸는 현 보수당국과 같은 쓸개빠진 무리들이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제 가도 전환될수 없다.

이러한 비극은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침략적인 외세를 내몰고 색을 대로 색은 부패무능한 사대매국반역무리들을 청산할 때이다.

김 광 역